

제8강 대승불교의 욕바라밀·화신과 선불교

(1교시)

◆대승불교의 욕바라밀·화신

※ 학습목표: 대승불교의 욕바라밀과 화신의 의미를 살핀다.

▲무부상보시의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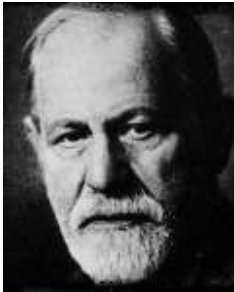
-무주상보시는 아상, 인상, 중생상, 수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. 이는 무아다. 또한 이 상태의 무아는 깨달음의 경지다.

-무아는 철학적 논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. 이는 종교적 깨달음의 경지이다. 그래서 철학적 논쟁이 가지는 논증 범위를 벗어난다.

▲지옥의 섹스

-지옥도 욕계에 속한다. 문제는 섹스의 유무가 아니라 섹스 욕구의 유무다. 그리고 여기서 섹스 욕구는 일상에서 말하는 일차적, 육체적 면만의 얘기가 아니다. 오히려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적 충동이다.

*참고자료



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(1856.5.6~1939.9.23)

정신분석학의 창시자

▲욕바라밀의 의미

-욕바라밀을 너무 일상적으로 끌어오면, 원래 의미와 멀어질 수 있다.

-보시는 perfection of giving이다. 단순히 베풀이나 베푸는 인자함의 차원이 아니다.

-욕바라밀은 perfection of~라는 표현을 쓰지만, 사실 perfection of wisdom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단어다. 그래서 보시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다. 그래서 perfection of wisdom의 바탕이 이끌게 된다.

▲대승적 무아의 양 측면

-perfection of wisdom은 무아다. 또,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깨달음이다. 이는 불교의 매력임과 동시에 문제점이다. 그 이유는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,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윤리적 덕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.

-여기서 지금 되면 영원히 되고, 지금 안 되면 영원히 안 된다. 그리고 일상적/세속적 행위에 대한 무상정/무의미만 드러내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. 즉 조금씩의 바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.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안 하는 것, 이에 대한 대승불교의 자각이 있었다.

▲화신

- 화신이 역사적 붓다라는 점에서 색신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.
- 화신은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이고 어떤 면에서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. 그런데 이것이 중생들의 공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. 그래서 붓다가 진리 자체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샤머니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.
- 화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? 우리의 욕심을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의 문제다. 나를 위한 기복과 남을 위한 기복은 다르다. 자신을 위한 기복은 욕심을 없애라는 부처와 반대로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.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.
- 화신은 중생들의 공기가 역사적/시간적/문맥적으로 드러나는 진리다. 형체가 없는 법신으로 본다면, 주어진 상황들에 담기는 그릇의 형태들이 화신이다.

▲욕망을 배제한 행복

- perfection of giving이 가능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. 다만 현실적 차원에서라도 내 복을 비는 것과 남의 위해 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. 또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의식적 행동이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.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비는 것보다 남을 위해 보는 것이 좀 더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

▲불교의 점층적·돈오적 수행

- 대승불교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점진적이다. 돈오는 sudden적인 것이다. 이는 선불교적이다.
-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는 점진적인 실행, 행위다. 소승불교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번뇌를 닦아 없앴(수)으로써 깨닫는 것이고 대승불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으로써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.
- 대승불교는 점층적이고 양에 더 관심이 많았다. 이러던 것이 선불교에 와서는 완전히 양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.
- 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. 즉 실제 실행된 것으로서의 불성이 아니라, 앞으로 피어날 붓다의 가능성으로 보인다.
- 선불교의 돈오도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. 점진적인 과정에서 돈오가 있는 것이다.

(2교시)

◆선과 선불교

※학습목표: 강의 안에서 다루는 불교란 무엇인지와 중국의 불교유입 과정을 살피고, 선불교를 들여다본다.

▲강의 안에서의 불교

-개론적 수업은 의미가 없다. 우리는 개론을 배워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는 착각을 한다.

-강의 안에서의 불교는 존재한 적이 없는 불교다. 어디까지나 강의를 위해서 재구성된 불교다.

▲선과 선불교

-불교의 중국유입과 관련해 선불교는 가장 위대한 탄생이다. 여기서 말하는 선불교는 선종이다.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선이라 할 때는 선종에서의 선만이 아니다. 선은 선정의 준말이다.

-불교가 다른 인도전통의 명상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정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. 이 선정은 삼매경과 깨어있는 마음이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명상법이다. 대개의 명상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다. 그런데 불교의 명상은 한 곳에 집중함과 동시에 모든 것에 깨어있는 것이다. 즉 서로 모순되는 방향의 것에 대한 동시 추구이다. 그리고 보통 선이란 불교의 명상 경험/방법이다.